

소상공 경영·서비스 혁신 꾀한다

전북중기청,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보급 공고 내달 18일까지 상점가·업종별 단체 신청 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9일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서비스 혁신을 위해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공고하고,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다음달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소상공인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

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 3월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되며, 다수의 스마트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스마트상점

은 최대 1,500만원(30곳, 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중기청은 2020년에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71곳, 2021년에는 김제 전통시장 31곳과 전주 시내 음식점 100여 곳에 스마트기술을 지원한 바 있다.

윤종욱 청장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화 및 디지털 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용도 높은 스마트기술 보급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고산농협 정기총회 서면의결로

고산농협(조합장 국영석)은 지난 8일 본점 회의실에서 제51기 결산 정기총회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서면의결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임원선거 결과 비상임감사에는 김병호 현 감사와 임형호 현 감사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으며, 사외이사에는 유규형 전 전북도 친환경정책팀장, 백승우 전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 학대학원장이 선출됐다.

고산농협은 2021년도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 9억8,600만원을 달성해 전기이월금 2억5,400만원을 더한 총 12만4,000만원 중 출자비대당 2억4,900만원, 사업이용과대당 3억6,800만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고, 법정적립금 1억2,400만원, 사업준비금 2억5,100만원, 차기이월금 2억4,800만원 등을 적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산농협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용고 배당과는 별도로 29억원을 간접 지원해 조합원 1인당 111만8,000원을 환원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 확대로 협동조합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영석 조합장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 사업에 적극 협조해주신 조합원 및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 참여를 당부 드리고 조합원 권익보호와 실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금융소비자보호 권익 증진

전북은행, 생생톡 고객센터 3기 발대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9일 금융소비자보호 권익증진 경영 실현을 위한 '생생톡 고객자문단 제3기 발대식'을 가졌다.

생생톡 고객자문단은 상품개발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고객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고객 참여 제도로서,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줌(Zoom)을 통해 진행했다.

제3기 전북은행 생생톡 고객자문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1년간 활동하며, 전북은행의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이벤트에 아이디어 제안 등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금융 소비자의 시각에서 전달한다. 이를 통해 전달된 의견들을 은행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해 고객 중심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생생톡 고객자문단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금융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 및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상생 경영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9일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 온실에서 연구원이 국내 기술로 육성한 프리지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곧 졸업·입학 시즌... 다양색색 '프리지아' 첫 선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서 열린 평가회서 연분홍색 '원교C3-83'·보라색 '원교C3-92' 선별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졸업식과 입학식 등으로 프리지아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색깔의 국내 육성 프리지아를 9일 선보였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지난해 조사한 프리지아 기호도를 보면, 소비자들은 시장의 92.8%를 차지하는 노란색뿐 아니라 다양한 색의 프리지아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색과 흰색 선호도는 33%로 같았고, 보라색과 분홍색 선호도는 각각 27%, 7%로 나타났다. 꽃의 형태에서는 홑꽃 26.7%, 겹꽃 73.3%로, 꽃잎이 많아 풍성한 느낌을 주는 겹꽃

선호도가 2배 이상 높았다.

농진청은 이러한 경향에 맞춰 농업인, 유통업체, 화훼장식 전문가(플리스트)가 참여하는 품종·계통 평가회를 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열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새로 개발한 연분홍색 '원교C3-83'과 보라색 '원교C3-92' 계통을 선보였다. 두 계통은 모두 꽃수가 많고 겹꽃으로 꽃이 풍성하며, 꽃줄기가 튼튼하다. 또한 절화(자른 꽃) 길이가 길고 향기가 진하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품종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에 개발한 품종도 함께 소개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5점 만점

에 4점 이상을 받은 ▲노란색 '썬니골드' (2018년 개발), '골드리치' (2008년 개발) ▲흰색 '폴리러브' (2016년 개발) ▲분홍색 '핑크벨' (2021년 개발) ▲보라색 '블루벨' (2014년 개발) 등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우량 알뿌리(종구)의 신속한 농가 보급을 위해 바이러스 무병 묘 생산과 대량 증식 과정도 소개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김원희 과장은 "소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프리지아 품종을 개발하겠다"며 "더불어 개발 품종이 시장에 신속하게 선보일 수 있도록 우량 알뿌리 생산과 농가 보급 체계 확립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농산물 판로 확대·농가 소득증가 도모

농식품부, 오늘부터 GAP 판로지원 대상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022년 GAP 판로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의 목적은 GAP 인증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인증 농가의 소득 증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지원 분야는 ▲GAP 인증 농산물 홍보 마케팅 기술 등의 교육,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홍보,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입점 지원 등 판매 3개 분야이며, 총 사업비 10억원에 1개소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GAP 판로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GAP 인증을 받은 개인 농가 및 직육반 등 단체이며, 인증 농가를 대표해 지역농협 단위로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지원을 신청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역량을 평가해 3월 7일 주간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10일부터 지역농협,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비대면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농협경제지주 누리집(www.nonghyup.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용직 식생활소비진흥과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GAP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GAP 인증 농업인 생산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 개편을 통해 단순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식품업체 종사자들이 모바일에서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클릭 몇 번으로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편된 FIS는 식품기업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는 가공식품 트렌드를 매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매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품목별 선두 기업과 브랜드 점유율, 성장률까지 폭넓게 알려준다. 특히 신규 메뉴인 원료정보에서는 식품기업의 농산물 사용 현황과 해당 농산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생산자 정보를 제공한다. /최대희 기자

경진원, 농공단지 입주기업대상 특화사업 모집

24일부터 28일까지 이메일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은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희망사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매출액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도내 농공단지 제조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노후 공정개선,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각종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사

업화 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경진원은 신청기업의 서류 적격심사, 현장실사, 대면평가의 단계를 통해 최종 7개사 내외를 선발해 각 최대 3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이날 28일까지며, 신청서 접수는 이날 24일부터 28일까지 이메일로 가능하다.

경진원 관계자는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www.jbta.kr)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주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